

국내 소식

인간·에너지 그리고 환경, '94에너지 전시회

'94에너지 전시회가 「인간·에너지 그리고 환경」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일본 등 13개국이 참여, 지난 3월25일 개막 31일까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 별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전시회를 통해 에너지절약 신기술과 정보, 우수 에너지절약 기기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에너지절약 및 지구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에너지기술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에너지기술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센터(소장: 최기련)는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운영규정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전문 관리기관 운영규정을 대폭 손질, 최근 상공자원부 승인을 마쳤다. 이번에 바뀐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운영규정의 큰 특징은 제출서류 등 제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사업비의 조정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환경을 가미한 탈황·탈질 등 청정에너지가 에너지기술에 포함되고 정부주도·정책·기반연구 사업을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주도 연구 사업 위주의 종전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센터의 기능이 강화된다.

사업범위 확대에 따라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Expert Pool)제를 도입,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전문관리기관 운영규정도 행정간소화 방향으로 개정, 계속사업과제는 신규사업과제와 분리시켜 연차보고 요약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로 신청을 같음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기업 부설연구소 현황 및 기업현황, 연구원 경력증

명서 제반서류, 사업비용 세부증빙서류 등은 제출서류에서 빠졌다. 이에 반해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5년동안 매년 실태파악 및 검토가 실시된다. 또 비목별 사업비의 상한선이 완화되어 연구수행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로 개선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사업 2억원 지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은 주요 94개 사회·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공모, 에너지연구회를 비롯한 8개 단체 8개 사업을 선정해 소요예산 2억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이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추진기반 확충 및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전반의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서 사회·경제단체와의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른 것으로 공단 이기성 이사장은 지난 3월16일 협력사업 단체로 선정된 주부교실, 시민의 모임, 에너지연구회 등 8개 단체장 및 심사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또 공단은 사업별 심사를 통해 우수, 보통, 불량 3등급으로 나눠 중간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며 불량 사업기관에는 차기년도 사업 배정시 배제할 방침이다.

한전, 일산·부천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지난 '91년 5월에 착공된 일산복합화력(60만kW급)과 부천복합화력(45만kW급)이 2년7개월만에 완공돼 지난 3월22일과 3월25일에 각각 준공식을 가졌다. 일산·부천 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기와 스팀터빈 발전기로 구성된 복합화력발전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열공급설비를 함께 갖추고 일산 12만여세대 및 부천 4만여세대의 신도시지역 약16만여세대에 난방용 열을 공급하게 된다. 일산·부천 복합화력발전소 신도시지역 약16만여세대에 난방용 열을 공급하게 된다. 일산·부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총 5천 9백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

배전반 규격표준화 절실

배전반에 대한 표준규격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12일 전기조합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소그룹별로 배전반 규격표준화가 이루어져 큰 효과를 보자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실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전기조합에서는 이미 '80년대에 배전반의 규격화에 대비, 표준규격을 설정해 놓고 업체들의 참여를 종용해 왔으나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업체가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전기공업계를 둘러싼 외부적 여건변화에 따라 배전반업계도 경쟁력강화가 최대의 과제로 부상, 업체들 스스로가 규격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기조합내 수배전반협의회는 단체규격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증대를 감안, 조만간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규격표준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업체 모두가 이의 실현이 가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 능력적인 면에서 적합한 업체를 중심으로 업체 스스로의 주도하에 후반기부터 중점 추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수배전반협의회회의의 복안이기도 하다.

배전반 규격표준화는 업체 및 제품의 신뢰성제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 끊임 없이 거론되어 왔던 부분이다.

전기협회, 장학금 전달

대한전기협회(회장 : 이종훈)는 지난 3월 24일 94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선발된 우수 전기공학도 20명에게 장학증서와

5천6백4십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기분야 우수전문인력육성 차원서 지난 '70년 에디슨 장학회로 발족,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 장학회는 이날 서울대 3학년 최항석군, 고려대 2학년 임훈규군 외 6명의 서울·경인지역 대학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경남대 3학년 이영길군 등 12명의 지방대학의 우수전기공학도를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대전전기,무정전 전원장치(UPS) 국내최초 ISO 9002 인증획득

(주)대전전기(대표이사 : 이호철)는 동종업계 최초로 미국품질경영 인증기관인 INTERTEK SERVICES CORP로부터 ISO-9002 규격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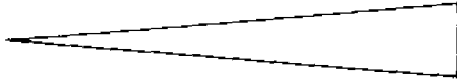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자동전압조정기(AVR) 등 전원장치를 생산·판매하는 이 회사는 동종업계 최초로 품질보증마크인 "품", "Q"마크를 획득하고 전 품목 "전"자 마크를 획득하여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왔으며, '93년 1월부터 ISO인증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의 지원아래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의 요구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ISO획득 추진결과 금년 2월9일자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동종업계 최초로 무정전전원장치(UPS), 자동전압조정기(AVR) 및 충전기 등 이회사 제조 전 품목에 대하여 생산에서 시험검사 및 설치등 ISO-9002가 요구하는 전공정에 대하여 국제품질인증인 ISO-9002를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증받은 것이다.

해 외 소 식

전기요금 절약시스템 개발

일본 전력시스템의 유니콘 엔지니어링사는 전기요금을 30~40% 절약할 수 있는 전기요금 절약 시스



전기계단식



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기본요금에 변압기의 용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에 착안하여 변압기 용량을 절반으로 하더라도 전기기기에는 100%의 전류가 흐르는 구조로 고안됐다.

종래부터 트랜스 용량을 십수% 낮게 하는 장치는 있었으나 절반으로 하는 장치는 이것이 처음이다. 유니콘 엔지니어링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변전설비를 가진 사업소에 매우 유용하다.

배터리 수명연장 PC용칩 개발

미국 TI사는 최근 휴대용 PC를 위한 486칩세트를 개발, 선보였다.

486SX급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컨트롤러칩, 주변기기 컨트롤러칩 등 3개의 칩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PC의 전력소모를 크게 줄여 배터리 수명시간을 2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마멸·용제 저항 탁월한 용접케이블 개발

6~4/OAWG사이즈에 유용한 용접 케이블이 미국 아메리칸 인슐레이티드 와이어사에 의해 개발됐다.

오일 저항 오렌지, 써머셋 피복을 갖춘 이 프리미엄 단계인 600V 케이블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계되고 제조됐다.

전선은 자동화장치 및 로봇용 응용품과 같은 거칠고 튼튼한 응용품에 사용된다.

디지털 이용한 두께 측정기 개발

영국에서 최근 개발된 고성능 디지털 초음파두께 측정기 「포타가지」는 포켓용 크기로 ±0.1mm까지 정보판독이 가능한 첨단기계이다.

스위치 작동으로 다양한 종류의 금속, 플라스틱, 섬유 등의 두께를 측정해주는 이 측정기의 중량은 300g 정도. 1.5mm에서 200mm까지 정보 판독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또 환경에 무해하며 유지비가 전혀 안 든다는 장점이 있다. 작동하려면 스위치를 켜고 접촉매질을 센서에 바른후 체크할 품목을 점검하면 된다.

회원소식

◎ 신규대행업체

* 한국전기설비안전공사

- 대표자 : 이명진
- 등록번호 : 경기 제46호('94. 1. 24 등록)
- 주 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 7동 164-1 벽성 빌딩 601호
- 전화번호 : (0343)42-7880

* 중부전기안전공사

- 대표자 : 황길연
- 등록번호 : 경기 제47호('94. 3. 8 등록)
- 주 소 : 평택시 서교동 8블럭 23롯데
- 전화번호 : (0333)655-0334~5

* 한국전력기술안전공사

- 대표자 : 김현택
- 등록번호 : 경기 제48호('94. 3. 17 등록)
- 주 소 : 광명시 하안동 35-7 다매프라자 빌딩 3층 4호
- 전화번호 : (02)809-9400

◎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 심민식(No 25306) : 무림주택관리
- 김근태(No 24078) : 기아그룹 연수원
- 배영진(No 20690) : 코리아나 호텔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본부 안용승이사 (안일농산 대표)부친 숙환별세('94. 4. 4)
- 부산지부 차이준회원(No 14435)교통사고 사망('94. 3. 3)